

(0618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빌딩 16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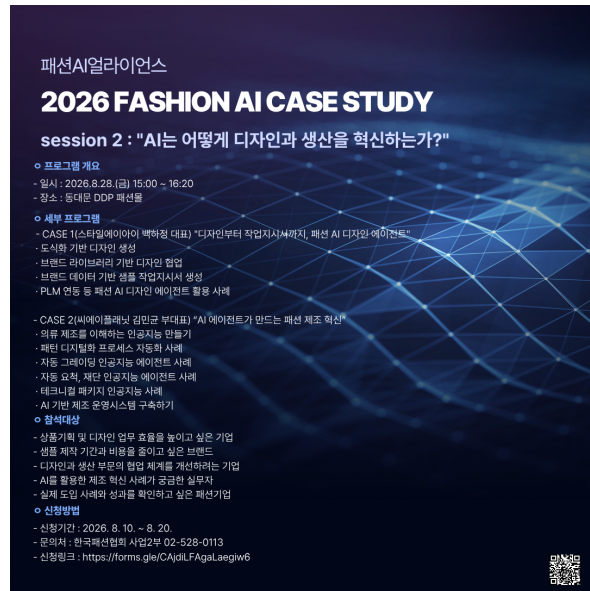
[문의] 사업2부 박영수 상무 02-528-0102 yspark@koreafashion.org

성래은 회장 “패션 AI 전환, 핵심은 기술보다 실제 업무 성과 연결”

한국패션협회, 「2026 FASHION AI CASE STUDY Session 2」 성황리 개최

9월부터 고객데이터·3D 공급망·글로벌마케팅 거쳐 연말 메인 포럼까지 연계

- 한국패션협회(회장 성래은)가 추진하는 “패션AI얼라이언스”의 두 번째 실증 세미나인 「2026 FASHION AI CASE STUDY Session 2」가 8월 28일 동대문 DDP 패션몰에서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 ‘AI는 어떻게 디자인과 생산을 혁신하는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상품기획부터 디자인, 봉제, 제조 생산에 이르기까지 AI 기술이 패션 실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 첫 발표자로 나선 스타일에이아이 백하정 대표는 AI 디자인 에이전트를 활용한 도식화 및 디자인 자동 생성, 브랜드 데이터 연동 작업지시서 생성 사례를 시연하며 디자인 업무 공수 단축 성과를 증명했다. 이어 씨에이플래닛 김민균 CTO는 의류 제조 데이터 자동화, 패턴 디지털화, 자동 그레이딩 및 요척·재단 AI 도입을 통한 스마트 제조 프로세스 구현 사례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협회는 이번 세션2에 이어 하반기에도 고객 리테일 데이터, 3D 샘플링·공급망 DX, 이커머스·글로벌 마케팅 등 패션산업 전반으로 실증 영역을 확대하고, 연말에는 기획·디자인, 제조·생산, 유통·마케팅, 지속가능성 등 스트림별 AI 기업의 상용화 성과를 공개하는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성래은 한국패션협회 회장은 “AI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패션기업의 디자인과 생산 방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패션AI얼라이언스를 통해 현장에서 검증된 AI 활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패션AI얼라이언스 포스터



패션AI얼라이언스 사진